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겨울철 위기가구에 따뜻한 버팀목

12~3월 2만 8천여 가구에 33억 6천만 원 지원
제도권 취약계층 미포함 일반 위기가구도 발굴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지원 사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기동대는 합평 나산면에서 노후 상가 1층에 세 들어 지내는 다문화가정(9명)이 보일러 없이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온수보일러와 중문을 설치해 찬바람을 막아주고, 민간 자원 연계로 난방용품 전달했다. 합평군 지역특화사업인 부식꾸러미 전달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실질적 생활 안정까지 지원했다.

또 장흥 부산면에 치매를 앓는 홀몸 어르신이 여름에 보일러 전원을 끈 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일러 긴급수리 후 매일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보일러를 점검하는 등 요양원 입소 전까지 따뜻한 환경에서 안전

하게 지내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2022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지원의 지난해 1만 1천500여 가구(12억 원·민간 자원 포함 시 23억 5천만 원) 지원의 두 배를 넘어, 지난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만 7천731가구를 지원(15억 5천만 원·민간지원 포함 시 33억 7천만 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절기 집중지원 결과 독거노인이 1만 6천582가구로 가장 큰 비율(59.8%)을 차지했다. 이어 노인 부부 2천485가구(9.0%), 장애인 2천113가구(7.6%), 중·장년 1인 세대 2천107가구(7.6%), 한부모가정 1천455가구(5.2%) 순이었다. 이번 동절기 집중지원에선 제도권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위기가구도 3천494가구(12.6%)를 발굴해 지원했다.

지원 유형별로는 분전함, 가스렌지·온열기기 점검·교체 등 화재예방 점검 1만 6천902가구(60.9%), 경제적 위기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5천910가구(21.3%), 보일러 및 온열기 수리·지원 등 난방시설·물품 지원 3천237가구(11.7%) 등이었다. 특히 화재예방 점검과 난방시설·물품 지원이 총 2만 139가구(72.6%)를 차지해 겨울철 화재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선제적 예방점검이 돋보였다.

또한 민간단체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난방유 및 난방물품 후원, 생필품 지원

등도 대폭 늘어나 민간 자원 연계까지 33억 7천여만 원 상당이 지원돼 겨울철 취약가구에 큰 도움이 됐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유난히 길었던 올겨울 한파에도 소외된 이웃을 직접 찾아가 온정을 나눈 복지기동대 덕분에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든든하게 지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산구의회 공공항특위,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 간담회

피해 최소화 및 학습권·건강권 증진 방안 논의

광산구의회 공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공병철)가 23일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광산구청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광산구에는 공공항 인근 6개교(송정동초·도산초·송정초·송광중·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가 심각한 소음피해를 받고 있지만, '군소음보상법'상 주민 보상만 규정하고 있고 학교·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아 지원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군소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과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증진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심

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군소음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방음시설 설치 등과 같은 환경개선, 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건강지원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광산구와 군부대, 교육청, 학부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수시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공병철 위원장은 "군소음으로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오랫동안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군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전국 최대 아쿠아포닉스농법으로 무농약 쪽파 역대소득

쪽파 등 73t 생산·가공·프랜차이즈사업 80억 매출

전국 최대 규모의 아쿠아포닉스농법으로 무농약 쪽파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한 가공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역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청년 농부가 있어 화제다.

아쿠아포닉스농법은 수경재배와 어류 양식의 합성어로, 양식을 통해 배출되는 어류 유기물로 농작물에 양분을 공급해 성장을 촉진하고 양식장 물을 수경재배로 활용해 물의 정화 작용을 돕는 친환경적 순환구조의 농업을 말한다.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주)전리팜. 20여 년 경력을 가진 외식산업 전문가인 김창수(44)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 법인은 2021년부터 시설하우스 2개도 0.9ha(2650평)에서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도입, 쪽파 등 생산·가공·판매를 통해 연간 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전리팜은 연간 무농약 쪽파 60t과 유려 피안 채소 12.5t 등 총 72.5t을 생산, 전량을 가맹점에 제값 받고 공급하며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구축했다.

차별화된 가공식품 개발과 프랜차이즈가 성공 비결로 꼽힌다. 우선 뿌리까지 먹을 수 있는 '무농약 뿌리감치'를 개발해 특허 등록했고, 이를 활용한 브랜드 '뿌파'를 론칭해 '뿌깍', '뿌파블러', '구워먹는 뿌파'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감자탕은 '남도식 파지 감자탕'을 대표 상품으로 판매해 고객들로부터 건강하고 시원한 국물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적으로 45개 가맹점이 운영중이며, 광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꾸준히 확장 중이다.

여기에 2024년부터 아쿠아포닉스 농법

을 활용한 다양한 수직농장을 개발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사업까지 확장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중동 K-스마트팜 로드쇼에서 중동 3개국에 스마트 농업을 소개했고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승원 기자



함평군 학교면 자율방범대 사랑의 온기나눔

밥술, 전자레인지 등 100만원 상당 가전제품 기부

전남 함평군 학교면 자율방범대(대장 김대홍)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했다.

함평군은 24일 "학교면 자율방범대가 전날 취약계층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밥술과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군은 기탁받은 가전제품을 국민기초생

할 보장법상 수급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세 가구에 전달할 예정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홍 학교면 자율방범대장은 "이번 기부를 계기로 온정이 함께하는 나눔문화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사랑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고흥군이 단연코 최고!

어깨동무봉사단 올해 여섯 번째 활동, 도덕면 신양마을에서 추진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4일 도덕면 신양마을에서 신양리 3개 마을(신양, 문관, 신성) 주민 24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섯 번째 어깨동무봉사단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어깨동무봉사단은 매월 1~2회 마을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신양마을 봉사는

259번째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70여 명의 봉사단원들은 신양마을 회관 광장에서 농기계·가전제품·방충망 수리,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회관 실내에서는 얼굴 마사지, 물리치료, 전통 운동방법, 돋보기 제공 등 총 30개 분야에 걸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실시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한국수력원자력주